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9 PUBLIUS RUTILIUS RUFUS THE LAST HONEST MAN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Publius Rutilius Rufus, the Last Honest Man」 (원서 PDF 69~74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아무도 정직하지 않을 때, 혼자 정직할 수 있는가."

루틸리우스는 뇌물 한 푼 쓰지 않고 선거에서 졌다. 부패를 고발하던 그는 자신이 지켜 준 사람들을 갈취했다는 누명을 쓰고도 변론 한마디 하지 않았고, 유배지로는 자신이 속였다는 바로 그 도시를 골랐다. 그 도시는 그를 두 팔 벌려 맞았다. 공부에도 뇌물이 있다. 해석을 통째로 외우고 남의 풀이를 베끼면 당장은 점수를 사지만, 시험장에서 그 값을 치른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8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정직의 대가와 '누구로 살 것인가'(73쪽 ¶8 ~ 74쪽 ¶1) / 유배지 스미르나(73쪽 ¶2~¶3) / 믿고 말하고 살아 냄(74쪽 ¶4~¶7) / 오래된 수법(72쪽 ¶2) / 일엔 스토아가 최고(71쪽 ¶2)
4~5	**밑줄 함축 의미**	shines more than he would elsewhere / men of his ilk / Scaurus himself—the corrupt one / he said something / the third founder of Rome / Muddy the waters / He was a mirror / the kangaroo court / blush for my exile than weep at my return / Plato's Republic / the storm before the storm / the carrot ... the legal stick
6	지칭 추론	he·his가 Rutilius·Marius 사이를 오가는 71쪽 ¶4~¶5 / it = 뇌물 쓰기를 거부한 일(70쪽 ¶5) / the same one = trick(72쪽 ¶2) / one small dignity = 유배지 선택권(73쪽 ¶2) / them = 스미르나 사람들(73쪽 ¶3)
7~8	내용 일치·불일치	경력과 성품(70쪽 ¶3~¶4: 138 BC · 약 20세 · 누만티아 · 군사 호민관 · 키케로의 폄하) / 마리우스의 이력(70쪽 ¶7 ~ 71쪽 ¶3: 기사 계급 · 일곱 번 · 독수리 · 재산 요건 · 101 BC · 12만 · 세 번째 창건자) / 115 · 109 · 78 BC / 그리스어 『로마사』
9~10	**어법**	동격 that절 주어 + 단수 동사 · 사람 선행사 who(which 불가) · 가주어 + for + to have p.p. · 강조구문(It was during ~ that / It was he who) · lead to + 소유격 + 동명사 · too ~ for A to V · Not only had ~ 도치 · accuse A of B · the lengths to which · refuse to V · 타동사 raise / 자동사 rise · the very + 명사 · cannot help -ing · Never did he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conspicuously↔inconspicuously · conclusive↔inconclusive · popular↔unpopular · meticulously↔carelessly · protect(shield)↔exploit · fair↔unfair · never lose sight of(forget)↔remember · stacked↔impartial · scrupulous↔unscrupulous · bitter↔content · justly↔unjustly · compromise↔hold firm
12	빈칸 추론	a matter of contrast / a different code / the best trained, the most disciplined, and the bravest / never lose sight of the interests of others / a mirror / prepared at all times for the unexpected blows / to be missed / believed it, spoke it, and lived it / the last honest man
13	문장 삽입	판결 → 재산 몰수 · 추방 → 판크라티온의 대비(72쪽 ¶5 ~ 73쪽 ¶1) / 선거 패배 → 고발 → 맞고발(70쪽 ¶5~¶6) / 귀환 위로와 답(73쪽 ¶4)
14	무관한 문장	군대 훈련과 '일엔 스토아' 단락(71쪽 ¶1~¶2)에 로마 군대의 다른 업적 끼워 넣기 / 마리우스의 이력(71쪽 ¶3) / 스미르나의 환영(73쪽 ¶3)
15	순서 배열	부패한 국가에서 물러나는 현자 → 공자 → 스미르나의 『로마사』 → 술라의 초청 거절(73쪽 ¶6~¶7) / 거짓 고발 → 침묵 → 판결 → 추방(72쪽 ¶3~¶5)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폭풍 전의 폭풍'과 공화정의 쇠퇴(74쪽 ¶2~¶3) / 오래된 수법(72쪽 ¶2) / 판크라티온의 대비(73쪽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가 유난히 많은 장이다(158 · 138 · 115 · 109 · 101 · 78 BC). 인물도 많다(파나이티오스 · 스카우루스 · 술라 · 마리우스 · 미트리다테스 · 디오 카시우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declined to bribe ↔ bribed voters, Greek ↔ Latin, Smyrna ↔ Rome, dropped ↔ raised the property requirement). 인물 · 언어 · 동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Publius Rutilius Rufus, the Last Honest Man」 (70~74쪽)

전기형(정치의 본성 → 경력과 인물 → 첫 시험 → 두 야심가 → 표적이 됨 → 거짓 고발과 침묵 → 유배 → 교훈 → 결말). 핵심 축은 **부패(corruption) vs 정직(honesty)**, 그리고 **말(saying) vs 실천(living)**.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0 ¶1~¶2	도입	정치는 더러운 일 — 권력은 자아를 끌어들이고 타락시킨다 / 트웨인: 정치판의 정직한 사람은 더 빛난다 = 대비(contrast)의 문제
70 ¶3	경력	스승 파나이티오스(138 BC 로마 귀환, 루틸리우스 약 20세) / 스키피오 서클 / 누만티아 전쟁의 군사 호민관
70 ¶4	인물	침울하고 엄격 · 존재감과 신념 / "예리하고 체계적인" 연설 vs 키케로의 폄하 / 가장 굳건한 스토아
70 ¶5~¶6	첫 시험	115 BC 집정관 선거 — 뇌물 쓴 스카우루스에게 패배 / 뇌물 쓰기 거부 / 선거 부정(ambitus) 고발과 맞고발 / 결론 없는 두 재판
70 ¶7 ~ 71 첫 줄	두 야심가	109 BC 유구르타 전쟁 / 술라 — 힘과 잔혹 / 마리우스 — 새로운 사람 · 기사 계급 · 일곱 번의 집정관 · 독수리 일곱 마리 징조
71 ¶1~¶2	동맹	군대 확장기에 훈련 · 배치 전략 총괄 / 마리우스는 루틸리우스가 훈련한 군대만 원함 / 일엔 스토아가 최고, 범죄엔 최악
71 ¶3	마리우스	병사와 함께 먹고 자며 재산 요건 폐지 → 민중의 인기 / 잔혹 / 101 BC 킴브리족 12만 / '로마의 세 번째 창건자' / 엘리트의 두려움
71 ¶4	첫 충돌	마리우스의 매표 의혹 / 같은 부정에 당해 본 루틸리우스 / 보면 말한다 → 잊지 않을 적
71 ¶5~¶6	혼란	폭도 장악력이 흔들림 → 귀족들이 옛 동맹 살해 / 마리우스의 망명 / 미트리다테스 선동(플루타르코스)
71 ¶7 ~ 72 첫 줄	표적	잘 훈련된 군대의 명성 / 파산법 개혁 / 소아시아 그리스인을 푸블리카니의 세금 착취에서 보호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2 ¶1~¶2	수법	포퓰리즘의 아이러니 / 오이케이오시스 — 남의 이익을 놓치지 않음 / 오래된 수법: 정직한 사람을 정반대의 죄로 고발
72 ¶3	거짓 고발	보호하던 사람들을 갈취했다는 누명 — 진짜 갈취자들이 고발 / 짜인 배심 · 배후의 마리우스 / '성가신 존재' → 거울
72 ¶4	침묵	무죄를 알기에 변론 거부 / 키케로: 변호인단도 침묵 · 스토아에게 고자질당할까 봐 / 소크라테스 · 마르틴 루터
72 ¶5 ~ 73 ¶1	판결	갚을 수 없는 판결액 · 재산 몰수 · 추방 / 판크라티온 선수처럼 삶의 타격에 대비하고 불평 없이 견딤(파나이티오스)
73 ¶2~¶3	유배지	유배지 선택권 = 무죄의 증거 / 스미르나 — 그가 사취했다는 도시 · 환영 · 시민권 / 오필리우스 아우렐리우스 / 78 BC 키케로의 방문
73 ¶4~¶7	유배의 삶	원한 없음 · 재산 증가 / "조국이 내 귀환에 울기보다 내 추방에 얼굴 붉히기를" / 현자는 물러남(공자) / 그리스어 『로마사』 / 술라의 초청 거절
73 ¶8 ~ 74 ¶1	교훈	옳은 일은 모든 것을 앗아 갈 수 있다 / 플라톤의 『국가』가 아님 / 거의 모두 유죄 / 세네카: 운명의 불공정 / 그래도 누구로 살 것인가
74 ¶2~¶3	전망	'폭풍 전의 폭풍'(마이크 덩컨) / 약해진 공화정 · 소수의 저항 / 다가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74 ¶4~¶7	결말	빛을 비춤 · 의심도 원한도 없음 / 제논은 말했을 뿐, 마르쿠스는 겪지 않음 — 루틸리우스는 믿고 말하고 살았다 / 당근 거부 / 로마의 마지막 정직한 사람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정치의 본성	권력 · 허영 · 거짓말쟁이와 겁쟁이(a dirty business)	그 속에서 더 빛나는 정직(a matter of contrast)
선거에 임하는 방식	뇌물로 당선(스카우루스 · 마리우스는 매표 의혹)	뇌물 쓰기 거부 — 확실한 패배를 감수(루틸리우스)
마리우스 vs 루틸리우스	민중의 인기 · 잔혹 · 군중의 변덕에 기댄 경력	원칙 · 규율 · 스토아의 의무감
부정을 보았을 때	가볍게 넘기기(평화를 잘 지켰으니)	보면 말한다(saw something, said something)
개혁의 이해관계	부자 · 기사 계급의 세금 징수업자(publicani)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 소아시아의 그리스인
누가 갈취자인가	고발 내용: 루틸리우스가 보호하던 사람들을 갈취	실제: 고발한 자들이 갈취자(the old trick)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열띤 변론 · 정치적 동맹 동원	침묵 · 변론 거부(소크라테스 · 루터)
추방의 의미	치욕 · 패배(ignominy)	무죄의 증거 — '피해자'라는 도시가 환영
귀환	내전이 열어 줄 귀환 · 술라의 초청	조국이 추방에 얼굴 붉히기를 — 정중한 거절
운명의 보상	선한 자는 벌받고 악한 자는 빠져나감(Fortune)	대가를 치러도 고개를 들고 떠나는 삶
스토아의 원칙	말로만(제논) · 겪지 않음(마르쿠스)	믿고 · 말하고 · 살아 냄(루틸리우스)
회유	당근 — 반대를 접으면 부와 지위	굽히지 않음(did not bend the knee)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Publius Rutilius Rufus	B. 158 BC – D. 78 BC · 로마 출신 · 발음 POOB-lee-us Roo-TILL-ee-us ROOF-us · 저자의 평 = '로마의 마지막 정직한 사람(the last honest man in Rome)'
Mark Twain	"정치판의 정직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보다 더 빛난다" → 저자: 대비(contrast)의 문제
Panaetius / 138 BC	루틸리우스의 철학 스승 · **138 BC** 로마로 돌아왔을 때 루틸리우스는 **약 20세** · 판크라티온 선수의 교훈(73쪽 ¶1)
Scipionic Circle / Numantine War	스키피오 서클의 여기저기 오가며 사랑받은 회원 ·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참모로 **군사 호민관** · 누만티아 전쟁 = 스페인 **중북부**의 잔혹한 전쟁
성품 · 연설	침울하고 엄격(somber and severe) · 존재감과 신념 · 한 목격자: "예리하고 체계적인(acute and systematic)" 연설 · 키케로는 그의 웅변을 **폄하**
Cicero	스토아의 자족이 그에게서 "가장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형태로" 구현 / 『연설가론(On Oratory)』에서 변호인단의 침묵을 지적 / **78 BC** 스미르나 방문 — "미덕과 옛 명예와 지혜의 본보기"
115 BC / Scaurus	집정관 선거에서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스카우루스**에게 패배 — 스카우루스는 뇌물로 당선 · 루틸리우스는 패배가 확실한데도 뇌물 쓰기를 보란 듯이 **거부**
ambitus	정치적 부패(선거 부정) 혐의 — 루틸리우스가 스카우루스를 고발 → 부패한 쪽인 스카우루스가 같은 혐의로 맞고발 · 두 재판 모두 **결론 없음**
109 BC / Sulla	유구르타 전쟁 무렵 야심가들의 십자 포화에 갇힘 / 술라 = 날것의 힘과 잔혹함으로 집권할 보수적 실력자 · 뒤에 마리우스를 이기고 **독재관**
Gaius Marius	루틸리우스와 **같은 시기**에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밑에서 군 복무 시작 · 노부스 호모(새로운 사람) · **기사 계급** · 기록적인 **일곱 번**의 집정관
독수리 징조	새끼 독수리 **일곱** 마리가 든 둥지가 무릎에 떨어짐(마리우스의 **주장**) · 예언자들: 위대함을 타고났고 권력을 일곱 번 쥘 운명
군대 훈련	군대 확장 · 개편기에 훈련 · 배치 전략 총괄 · 마리우스는 루틸리우스가 훈련한 군대와만 싸우려 했다고 **전해짐**(가장 잘 훈련 · 규율 · 용감)
Marius의 인기	병사와 함께 먹고 자며 병역의 **재산 요건 폐지** → 민중의 큰 인기 / 잔혹하고 무자비 / 로마 엘리트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며 두려워함
101 BC / Cimbri	**네 번째** 집정관직 뒤 게르만족 킴브리에 극적 승리 · **12만** 명 학살 → '로마의 **세 번째** 창건자'
Mithridates	폰투스와 소아르메니아의 왕 · 망명 중인 마리우스가 로마와의 전쟁을 부추겼다(플루타르코스) — 원로원이 자신을 다시 부르게 하려고
개혁 / publicani	늘어나는 부채 앞에서 **파산법** 개혁 · 소아시아의 그리스인을 **푸블리카니**(로마 기사 계급)의 세금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앞장
oikeiosis	스토아의 오이케이오시스 — 자기 이익 속에서도 남의 이익을 결코 놓치지 않음 · 공익에 봉사 → 부자의 희생을 부르는 개혁
거짓 고발	보호하던 사람들을 **갈취했다**는 누명 — 실제 갈취자들이 고발 · 짜인 배심 · 배후의 마리우스 / **디오 카시우스**: 그의 탁월함과 평판이 마리우스에게 "성가신 존재" → 저자: "거울"
재판	무죄를 알기에 **변론 거부** · 동맹도 부르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음 · 키케로의 농담(열띤 변론을 하면 스토아에게 고자질당할까 봐) · 소크라테스의 전략 · 마르틴 루터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판결 / Smyrna	거액 판결 · 재산 몰수 · 추방 / 유배지를 고를 기회 = 무죄의 증거 → **스미르나**(그가 사취했다는 도시, 한때 그가 다스린 곳) · **시민권** 제안
Opilius Aurelius	수에토니우스의 기록 · 에피쿠로스학파 사람의 해방 노예 · 철학 → 수사학 → 문법을 가르침 · 스미르나에서 노년까지 함께 삶
유배의 삶	원한 없음 · 재산이 늘고 선물이 쏟아짐(전하는 바) / "조국이 내 귀환에 울기보다 내 추방에 얼굴 붉히기를" / **그리스어**로 『로마사』 집필 / 술라의 초청을 정중히 거절
Confucius	철학자이자 군주들의 조언자 · 수세기 전 비슷한 말 — 국가가 구제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면 현자는 물러난다(스토아의 믿음)
Seneca / Mike Duncan	세네카: 소크라테스 · 루틸리우스 · 폼페이우스와 키케로 · 카토 → "운명은 상을 이토록 부당하게 준다" / 덩컨(작가 · 팟캐스터, 2000년 뒤): "폭풍 전의 폭풍"
Zeno / Marcus Aurelius	제논: "내 몸에 폭력을 가할 수는 있어도 내 정신은 철학에 남는다" — 말했을 뿐 / 마르쿠스: 억울한 유죄 판결도 집을 잃는 일도 없었음 / 루틸리우스는 믿고 말하고 살아 냄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Publius Rutilius Rufus, the Last Honest Man」 (원서 PDF 70~74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9-1 더러운 정치, 빛나는 정직 70쪽 ¶1~¶4

원문 위치 원서 70쪽 ¶1~¶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여섯째 문장	disincentivizes responsibility	반전 후보 → encourages
▲	¶1 일곱째 문장	and always will be filled, with	is filled / will be filled 병렬
▲	¶2 첫 문장	Which is why	앞 내용을 받는 Which is why
◆	¶2 첫 문장	shines more than he would elsewhere	밑줄 의미: 어두운 곳의 빛
★	¶2 둘째 문장	a matter of contrast	빈칸 1순위
▲	¶2 셋째 문장	none shone brighter or stood out more than	부정 주어 + 비교급 = 최상급 의미
▲	¶2 셋째 문장	as rare among his peers as it is today	원급 비교 + 대명사 it
▲	¶3 첫 문장	as illustriously as one could	자동사 + 부사 / as ~ as one could
★	¶3 둘째 문장	138 BC ... about twenty	숫자 — 서답형 후보
▲	¶3 셋째 문장	A roving and beloved member ..., Rutilius	문두 동격 명사구
◆	¶3 넷째 문장	men of his ilk	밑줄 의미: 그와 같은 부류
▲	¶4 첫 문장	may have had ..., come ..., or displayed	may have + p.p. 세 개 병렬
●	¶4 둘째 문장	disparage his eloquence	반전 후보 → praise
▲	¶4 셋째 문장	with Cicero observing ... that	with + O + 현재분사

내용

정치는 더러운 일이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다. 로마에서도 오늘날처럼 권력은 자아를 끌어들이고 사람을 타락시키며, 허영에 상을 주고 책임감을 꺾는다. 정치판은 앞으로도 늘 거짓말쟁이와 사기꾼, 선동가와 겁쟁이로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판의 정직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보다 더 빛난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은 옳다. 대비의 문제다. 정치에 나선 스토아 가운데 푸블리우스 루틸리우스 루푸스만큼 빛나고 두드러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오늘날만큼이나 그 시대에도 드물었던, 맹렬하지만 조용한 정직으로 로마의 부패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출발은 더없이 화려했다. 그는

파나이티오스에게 철학을 배웠는데, 스승이 로마로 돌아온 기원전 138년에 루틸리우스는 약 스무 살이었다. 스키피오 서클을 오가며 사랑받는 회원이었고, 스페인 중북부의 잔혹한 누만티아 전쟁에서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참모로 군사 호민관을 지냈다. 그와 같은 부류에게 거의 무한한 출세를 약속하는 제국의 유망한 청년이었다. 다른 이들이 더 화려한 성격이나 더 나은 가문, 더 큰 야심을 지녔을지 몰라도, 침울하고 엄격한 루틸리우스의 존재감과 신념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그는 학식과 훈련을 갖추었고, 한 목격자는 그의 연설을 "예리하고 체계적"이라 했지만 키케로는 그의 웅변을 깎아내렸다. 그러나 그의 스토아 정신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키케로도 스토아 철학의 자족이 그에게서 "가장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형태로" 구현되었다고 썼다.

어법

- **It is filled, and always will be filled, with liars, cheats, demagogues, and cowards** : is filled와 삽입된 will be filled가 with ~를 함께 받는다. be filled with = ~로 가득하다. 삽입구는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덧붙인다.
- **Which is why Mark Twain was quite right when he said that** : 앞 단락 전체를 받는 which가 문장 첫머리에 온 구어적 표현(= And that is why). 문법적으로는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저자가 일부러 쓴 문체다.
- **"an honest man in politics shines more than he would elsewhere."** : 조동사 would 뒤 shine 생략(than he would shine elsewhere). would = 다른 곳에 있다면(가정).
- **perhaps none shone brighter or stood out more than Publius Rutilius Rufus** : none + 비교급 + than = 누구도 ~보다 더 ~하지 않았다(최상급의 뜻). shone = shine(빛나다)의 과거형.
- **a fierce but quiet honesty that was as rare among his peers as it is today** : as + 형용사 + as 원급 비교. it = honesty.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honesty).
- **His career began as illustriously as one could imagine** : 자동사 began을 꾸미므로 부사 illustriously. as ~ as one could imagine =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하게. 변형 → illustrious(형용사)는 오답.
- **While others may have had more glittering personalities, come from better families, or displayed greater ambitions than the somber and severe Rutilius** : while = ~이긴 하지만(양보). may have 하나에 과거분사 had / come / displayed가 병렬. come은 과거분사형(come-came-come).
- **with Cicero observing in the same book about Rutilius that the self-sufficiency of his philosophy "was exemplified in him in its firmest and most unswerving form."** : with + O + 현재분사(부대상황: 키케로가 ~라고 말하면서). that절의 주어 the self-sufficiency(단수) → was exemplified(수동).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rrupt (v.)	타락시키다	deprave	purify
vanity	허영	conceit	modesty
disincentivize	의욕을 꺾다	discourage	encourage
demagogue	선동 정치가	rabble-rouser	—
contrast	대비	difference	similarity
stare down	정면으로 노려보다, 맞서다	confront	back down
illustriously	빛나게, 화려하게	brilliantly	obscurely
roving	여기저기 다니는	wandering	settled
ilk	부류, 종류	kind, type	—
somber	침울한, 진지한	grave, serious	cheerful
severe	엄격한	stern	lenien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viction	신념, 확신	belief, certainty	doubt
disparage	깎아내리다	belittle	praise
unswerving	흔들림 없는	steadfast	wavering

내용 일치 138 BC = 파나이티오스가 로마로 돌아온 해(루틸리우스 약 20세) · 누만티아 전쟁 = 스페인 중북부 · 직책 = 군사호민관(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참모) · '예리하고 체계적' = 한 목격자의 평 · 웅변을 폄하한 사람 = 키케로. **밑줄 의미** shines more than he would elsewhere = 어두운 곳일수록 정직이 두드러진다(대비) / men of his ilk = 그와 같은 부류의 유망한 젊은이들.

> **한 줄 요약** 부패가 판치는 정치판이라 더 빛난 루틸리우스는 파나이티오스의 제자로 화려하게 출발했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굳건한 스토아였다.

9-2 뇌물 쓰기를 거부한 낙선, 그리고 두 야심가 70쪽 ¶5 ~ 71쪽 ¶2

원문 위치 원서 70쪽 ¶5 ~ 71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 첫 문장	The first hint that Rutilius operated by a different code came	동격 that절 + 단수 동사
★	¶5 첫 문장	115 BC … Marcus Aemilius Scaurus	숫자·인물 — 서답형 후보
▲	¶5 첫 문장	who, like many others before him, had bribed his way into office	계속적 용법 who + 과거완료
▲	¶5 둘째 문장	It would have been easy … for Rutilius to have done the same	가주어 + 의미상 주어 + 완료부정사
●	¶5 둘째 문장	conspicuously declined	반전 후보 → did the same(뇌물을 씀)
◆	¶5 둘째 문장	even though it ensured his defeat	지칭: it = 뇌물 쓰기를 거부한 일
◆	¶5 넷째 문장	Scaurus himself—the corrupt one—	밑줄 의미: 적반하장의 맞고발
▲	¶6	Neither trial was conclusive	neither + 단수 명사 + 단수 동사
▲	¶7 첫 문장	It was during the Jugurthine War in 109 BC that	강조구문(부사구 강조)
▲	¶7 넷째 문장	would lead to his holding a record seven	전치사 to + 소유격 + 동명사
▲	71쪽 첫 줄	a feat Marius claimed had been foretold by an omen in which	관계사 생략 + 삽입절 / 전치사 + 관계대명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1쪽 첫 줄	seven young eagles	숫자 — 서답형 후보
▲	71쪽 ¶1 셋째 문장	troops trained by Rutilius	과거분사 후치 수식
★	71쪽 ¶1 셋째 문장	the best trained, the most disciplined, and the bravest	빈칸·내용 일치 후보
▲	71쪽 ¶2 첫 문장	If you want the job done right	want + O + 과거분사
◆	71쪽 ¶2 둘째 문장	there's nobody worse	밑줄 의미: 부정의 공범으로는 최악

내용

루틸리우스가 다른 규범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첫 조짐은 기원전 115년에 나타났다. 그는 집정관 선거에서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스카우루스에게 졌는데, 스카우루스는 앞선 많은 이들처럼 뇌물로 자리에 올랐다. 루틸리우스도 똑같이 하기는 쉬웠을 것이고 어쩌면 당연히 그러리라 여겨졌겠지만, 그는 그 거부가 패배를 확실하게 만드는데도 보란 듯이 뇌물 쓰기를 거부했다. 대신 스카우루스를 선거 부정(ambitus) 혐의로 고발했고, 정작 부패한 쪽인 스카우루스는 같은 혐의로 루틸리우스를 맞고발했다. 어느 재판도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다가올 싸움의 예고였다. 기원전 109년 유구르타 전쟁 무렵, 루틸리우스는 로마의 거대한 공화정을 손에 넣으려는 싸움에서 더 야심 차고 파렴치한 정치인들의 십자포화에 갇히게 된다. 한 사람은 날것의 힘과 잔혹함으로 권력을 쥘 보수적 실력자 술라였다. 또 한 사람은 루틸리우스와 같은 시기에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밑에서 군 생활을 시작한 가이우스 마리우스였다. 기사 계급의 '새로운 사람(노부스 호모)'이었던 마리우스는 기록적인 일곱 번의 집정관직으로 이어질 빛나는 군 경력을 쌓았고, 새끼 독수리 일곱 마리가 든 둥지가 무릎에 떨어진 징조가 이를 예언했다고 주장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동맹이었다. 군대가 확장되고 개편되던 시기에 루틸리우스는 새로 다양해진 군대의 훈련과 배치 전략을 이끌었고, 마리우스는 가장 잘 훈련되고 규율 잡히고 용감한 루틸리우스의 군대와만 싸우려 했다고 전해진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스토아만 한 사람이 없고, 범죄와 부패를 도울 사람을 찾는다면 스토아만큼 나쁜 사람도 없다.

어법

- **The first hint that Rutilius operated by a different code came in 115 BC** : the first hint + that절 = 동격(hint의 내용). 주어 The first hint(단수) → came. operate by a code = 어떤 규범에 따라 움직이다.
- **It would have been easy, perhaps expected, for Rutilius to have done the same** :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진주어 to have done(완료부정사). would have been = 과거 사실의 반대(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 **but he conspicuously declined even though it ensured his defeat** : even though = 비록 ~이지만(사실에 대한 양보). it = 뇌물 쓰기를 거부한 일. ensure = 확실하게 만들다.
- **Neither trial was conclusive, but it presaged the fight to come** : neither + 단수 명사 → 단수 동사 was. the fight to come = 다가올 싸움(형용사적 to부정사). it은 두 재판을 둘러싼 일 전체를 받는다.
- **It was during the Jugurthine War in 109 BC that Rutilius would find himself caught in the crossfire** : It was ~ that 강조구문(시간의 부사구 강조). find oneself + p.p. = 어느새 ~한 처지가 되다.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 **a brilliant military career that would lead to his holding a record seven consulships** : lead to의 to는 전치사 → 동명사 holding. his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변형 → lead to hold는 오답.
- **a feat Marius claimed had been foretold by an omen in which an eagle's nest containing seven young eagles fell into his lap** : a feat 뒤 주격 관계대명사가 삽입절(Marius claimed) 앞에서 생략된 구조.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omen). containing = 현재분사 후치 수식.
- **If you want the job done right, there's no one better to do it than a Stoic** : want + O + 과거분사(일이 '되는' 쪽). no one + 비교급 + than = 최상급의 뜻. to do it = no one을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de	규범, 원칙	principle	—
bribe one's way into	뇌물로 ~에 들어가다	buy one's way into	—
conspicuously	눈에 띄게, 보란 듯이	noticeably	inconspicuously
decline	거절하다, (~하기를) 거부하다	refuse	accept
ensure	확실하게 하다	guarantee	—
corruption	부패	dishonesty	integrity
conclusive	결정적인	decisive	inconclusive
presage	예고하다	foreshadow	—
unscrupulous	파렴치한	unprincipled	scrupulous
strongman	실력자, 독재자	dictator	—
omen	징조	sign, portent	—
overhaul	개편, 정비	reform	—
disciplined	규율 잡힌	orderly	undisciplined

내용 일치 115 BC 집정관 선거의 승자 = 스카우루스(뇌물) · 루틸리우스는 뇌물 쓰기를 거부 · 혐의 = ambitus · 두 재판 모두 결론 없음 · 109 BC = 유구르타 전쟁 · 마리우스 = 기사 계급의 새로운 사람, 일곱 번의 집정관 · 독수리 일곱 마리는 마리우스의 '주장' · 루틸리우스의 군대 이야기는 '전해지는 말'. **지칭** 70쪽 ¶5 it(ensured his defeat) = 뇌물 쓰기를 거부한 일 / ¶7 One of these · Another = 야심 차고 파렴치한 정치인들 가운데 술라 · 마리우스 / 71쪽 첫 줄 he = Marius.

> **한 줄 요약** 뇌물 쓰기를 거부해 낙선한 루틸리우스는 부패를 고발했고, 곧 술라와 마리우스라는 야심가들 사이에 서게 되었다.

9-3 민중의 영웅 마리우스, 보면 말한 사람 71쪽 ¶3 ~ 72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71쪽 ¶3 ~ 72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 첫 문장	Marius, who lived …, and who dropped …, was	관계절 두 개 삽입 + 본동사 was
▲	¶3 첫 문장	limited who could serve in the army	의문사 주어 간접의문문(목적어)
●	¶3 첫 문장	enormously popular with the masses	반전 후보 → unpopular
★	¶3 셋째 문장	In 101 BC, following his fourth consulship	숫자 — 서답형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 셋째 문장	in which 120,000 of their fierce troops were slaughtered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수동
◆	¶3 넷째 문장	"the third founder of Rome"	밑줄 의미·서답형 후보
▲	¶3 넷째 문장	who wondered what his intentions were	간접의문문 어순
▲	¶4 둘째 문장	Having been on the wrong end of this kind of cheating himself	완료 분사구문(이유)
▲	¶4 셋째 문장	what was the point of having elections if	수사의문문
◆	¶4 넷째 문장	when Rutilius saw something, he said something	밑줄 의미: 부정 앞의 침묵 거부
▲	¶5 둘째 문장	proved too much for even Marius to control	too ~ for A to V
◆	¶5 셋째 문장	one of his former allies ... his prison cell	지칭: Marius / 그 옛 동맹
▲	¶6 첫 문장	incited Mithridates ... to start a war against Rome, which he was certain would ease	incite + O + to V / 관계사 + 삽입절
▲	¶7 첫 문장	it was probably inevitable, then, that Rutilius ... would eventually find himself a target	가주어 it + that절
▲	¶7 둘째 문장	Not only had he gained ..., but he had also begun making	not only 도치
◆	72쪽 첫 줄	the publicani, members of the Roman equites	동격: 기사 계급의 세금 징수업자

내용

마리우스는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누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던 재산 요건을 없애 민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도 했다. 기원전 101년 네 번째 집정관직을 마친 뒤 그는 게르만족 킴브리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 그들의 사나운 병사 12만 명을 학살했고 '로마의 세 번째 창건자'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군중의 변덕에 경력을 건 인물이 늘 그렇듯, 그의 의도를 의심한 로마 엘리트는 그를 깊이 두려워했다. 루틸리우스와 마리우스의 첫 충돌은 단순했다. 마리우스가 빚을 갚아 주고 표를 사서 당선되었다고 루틸리우스는 믿었다. 그런 부정에 직접 당해 본 그는, 마리우스가 평화를 훌륭히 지켜 왔다 해도 가볍게 넘길 사람이 아니었다. 선거가 사기라면 선거를 왜 하는가. 그래서 그는 본 것을 말했고, 그 배신을 잊지 않을 적을 얻었다. 한동안 그가 안전했던 것은 마리우스의 폭도 장악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분노한 귀족들은 마리우스의 보호 시도에도 감방 지붕을 뜯어내고 그의 옛 동맹 한 사람을 살해했다. 사방의 긴장이 폭발했고, 그를 끝내 믿지 않던 원로원 앞에서 마리우스는 한동안 로마를 떠나야 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망명 중의 마리우스는 원로원이 자신을 다시 부르게 하려고 폰투스와 소아르메니아의 왕 미트리다테스에게 로마와의 전쟁을 부추겼다. 음모와 정치 폭력, 노골적 부패의 시대였다. 마리우스와 다투지 않았더라도, 철저하게 정직하고 스토아의 의무감에 따라 움직인 루틸리우스는 결국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잘 훈련된 군대로 찬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늘어나는 부채 앞에서 파산법을 개혁하고, 로마 기사 계급인 푸블리카니의 세금 착취로부터 소아시아의 그리스인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다.

어법

- **Marius, who lived and ate with his troops, and who dropped the property requirement that had previously limited who could serve in the army, was enormously popular with the masses** : 계속적 용법 관계절 두 개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었다. 본동사 was(주어 Marius). who could serve = limited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의문사 who가 주어라 어순 그대로).
- **a dramatic victory over the Germanic Cimbri, in which 120,000 of their fierce troops were slaughtered** : 전치사 + 관계대명사 in which(선행사 victory). 숫자 + of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were. 학살'당했다' → 수동.
- **like any figure whose career rested on the whims of the crowd, he was deeply feared by the Roman elite, who wondered what his intentions were**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 what his intentions were = 간접의문문(평서문 어순). 변형 → what were his intentions는 오답.
- **Having been on the wrong end of this kind of cheating himself, Rutilius was not the type to take it lightly** : 완료 분사구문(= Because he had been ~): 주절보다 앞선 일. the type to V = ~할 사람. take it lightly = 가볍게 넘기다.
- **A group of angry aristocrats proved too much for even Marius to control** : too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 너무 ~해서 …조차 ~할 수 없다. prove + 보어 = ~로 드러나다.
- **Marius incited Mithridates ~ to start a war against Rome, which he was certain would ease the Senate's fears of him and force them to call Rome's "third founder" back** : incite / force + O + to V. which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war), he was certain = 삽입절. would ease와 (would) force가 병렬.
- **it was probably inevitable, then, that Rutilius, meticulously honest and ruled by his sense of Stoic duty, would eventually find himself a target**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주어 Rutilius 뒤에 형용사구 · 분사구 삽입. find oneself + 명사 = 어느새 ~가 되어 있다.
- **Not only had he gained acclaim for his well-disciplined troops, but he had also begun making reforms to bankruptcy law** : not only가 문두 → had + 주어 + p.p. 도치. 뒤 절은 but ~ also(정상 어순). begin은 -ing · to V 모두 목적어로 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he masses	대중	the public	the elite
merciless	무자비한	ruthless	merciful
slaughter	학살하다	massacre	spare
herald (v.)	칭송하다, 알리다	hail	—
whim	변덕	caprice	—
fraudulent	부정한, 사기의	dishonest	honest
betrayal	배신	treachery	loyalty
shaky	불안정한	unstable	firm
incite	부추기다, 선동하다	provoke	discourage
intrigue (n.)	음모	plot	—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avoidable
meticulously	꼼꼼하게	scrupulously	carelessl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cclaim	찬사	praise	criticism
spearhead (v.)	앞장서다	lead	—

내용 일치 101 BC = 네 번째 집정관직 뒤 킴브리 승리 · 12만 명 · 세 번째 창건자 · 재산 요건은 '없앴다' · 그를 두려워한 쪽 = 엘리트 · 첫 충돌 = 매표 의혹 · 미트리다테스 = 폰투스와 소아르메니아의 왕(플루타르코스) · 개혁 = 파산법 · 소아시아 그리스인 보호. **지칭** 71쪽 ¶5 one of his former allies의 his = Marius, his prison cell · protect him = 그 옛 동맹 / ¶6 them = the Senate / ¶7 he = Rutilius.

> **한 줄 요약** 민중의 영웅이자 잔혹한 장군 마리우스의 매표를 루틸리우스는 눈감지 않았고, 부자의 이익을 건드리는 개혁으로 결국 표적이 되었다.

9-4 거꾸로 씌운 죄, 침묵의 변론 72쪽 ¶1 ~ 7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72쪽 ¶1 ~ 7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a populist irony	밑줄 의미: 약자를 내세워 약자를 막는 모순
▲	¶1 넷째 문장	stymie any reforms that will actually make the system more fair	make + O + 형용사
▲	¶1 다섯째 문장	All that matters is	All that ~ + 단수 동사
★	¶2 첫 문장	we must never lose sight of the interests of others	빈칸·어휘 1순위(오이케이오시스)
▲	¶2 셋째 문장	know who he was crossing by deciding to advocate for	간접의문문 + by -ing
◆	¶2 여섯째 문장	the same one that Scaurus used	지칭: one = a very old trick
▲	¶2 여섯째 문장	Accuse the honest man of precisely the opposite of what they're doing	accuse A of B / what / 단수 they
◆	¶2 여덟째 문장	Muddy the waters.	밑줄 의미: 진실을 흐리기
▲	¶3 첫 문장	So it was that Rutilius, who had instigated …, was brought up on false charges	So it was that + 과거완료 대비
▲	¶3 셋째 문장	the lengths to which they were willing to go	전치사 + 관계대명사
●	¶3 넷째 문장	The jury was stacked.	반전 후보 → impartial
◆	¶3 아홉째 문장	He was a mirror.	밑줄 의미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첫 문장	Knowing in his heart ..., Rutilius declined to defend himself, refusing	분사구문 + decline to V
▲	¶4 넷째 문장	it wasn't only Rutilius's silence that condemned him	강조구문
◆	¶4 넷째 문장	the kangaroo court	밑줄 의미: 엉터리 재판
▲	¶5 넷째 문장	No longer could this stickler ..., nor could	부정어 도치

내용

포퓰리즘의 아이러니가 있다. 실력자는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약속을 하며 권력을 잡지만, 그들을 도울 생각은 없다. 오히려 제도를 실제로 공정하게 만들 개혁을 적극적으로 막는다. 중요한 것은 무지한 지지층을 쥔 손아귀와 거기서 나오는 권력뿐이다. 루틸리우스는 그저 자기 일을 했다. 자기 이익을 좇으면서도 남의 이익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감각, 곧 공익에 봉사하는 스토아의 오이케이오시스가 그를 자신보다 훨씬 큰 싸움으로 몰아넣었다. 부자의 희생을 부르는 개혁을 옹호하며 누구를 거스르는지 그는 알았을까. 큰 불의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을까. 아니다. 그다음은 스카우루스가 쓴 것과 같은 아주 오래된 수법이었다. 정직한 사람을 그가 하는 일의 정반대, 곧 네가 저지르는 죄로 고발하라. 평판을 역이용하고, 물을 흐리고, 거짓으로 더럽히고, 똑같이 적용하면 부패한 기득권이 살아남지 못할 기준을 들이대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여러 부패 사건의 기소를 일으키고 주재했던 루틸리우스가, 자신이 보호하던 사람들을 갈취했다는 거짓 혐의로, 실제로 갈취하던 자들에게 고발당했다. 그가 갈취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는 점도 불리했다. 그는 적들의 적의와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거의 망연자실한 듯했다. 배심원단은 짜여 있었고 마리우스가 배후에서 기소를 밀었다. 역사가 디오 카시우스는 루틸리우스의 "탁월함과 좋은 평판이 마리우스에게 성가신 존재였다"고 전한다. 저자는 되묻는다. 성가신 존재라고? 그는 거울이었다. 부패하고 이기적인 자들이 내세우는 모든 것을 규탄하는 걸어 다니는 증거였다. 무죄를 마음속으로 알았던 루틸리우스는 변론을 거부했다. 정치적 동맹을 부르지도, 한마디 하지도 않았다. 평판이 자신을 구하리라 믿었을까, 자기 품위에 갇혔을까. 키케로는 『연설가론』에서 그를 유죄로 만든 것이 그의 침묵만이 아니라 엉터리 재판에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변호인단이었다고 지적하며, 열띤 변론을 하면 스토아에게 고자질당할까 봐 겁냈던 모양이라고 농담했다. 소크라테스의 전략이자 마르틴 루터의 "여기 내가 서 있다"였다. 고귀한 태도였지만 적들은 손쉽게 그를 처리했다. 가장 부패한 관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의 판결로 재산이 몰수되고 그는 추방되었다. 이제 이 깐깐한 원칙주의자는 마리우스의 약탈을 막을 수 없었고, 그의 존재가 떠오르는 범죄 계급을 부끄럽게 할 수도 없었다.

어법

- **following his sense of how, in our self-interest, we must never lose sight of the interests of others** : 분사구문(= as he followed ~). 전치사 of + 의문사절(how ~). lose sight of = ~을 놓치다, 잊다.
- **Did Rutilius know who he was crossing by deciding to advocate for reforms that came at the expense of the rich?** : 간접의문문 who he was crossing(평서문 어순). by -ing = ~함으로써. at the expense of = ~의 희생으로. the rich = 부자들(the + 형용사).
- **Accuse the honest man of precisely the opposite of what they're doing, of the sin you yourself are committing** : accuse A of B(A를 B의 죄로 고발하다).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원문은 the honest man을 성별을 가리지 않는 단수 they로 받는다. you yourself = 강조의 재귀대명사.
- **Run them out of town by holding them to a standard that if equally applied would mean the corrupt but entrenched interests would never survive** : 관계절 that ~ would mean 사이에 if (it were) equally applied가 끼어든 구조. hold A to a standard = A에게 어떤 기준을 들이대다.

- **he seemed almost stunned by the animus of his enemies and the lengths to which they were willing to go** : go to great lengths(무슨 짓이든 하다)에서 나온 the lengths to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변형 → the lengths which they were willing to go는 오답(to가 빠짐).
- **Knowing in his heart that he was innocent, Rutilius declined to defend himself, refusing to call on his own political allies or even utter a word in his defense** : 이유의 분사구문 Knowing ~ + 부연의 분사구문 refusing ~. decline · refuse 모두 to V를 목적어로 쓴다. utter는 to call과 병렬된 원형.
- **Cicero remarks on how it wasn't only Rutilius's silence that condemned him, but in fact none of his defense team raised a voice** : remark on how S V = ~라는 점을 지적하다. It wasn't only A that ~ = 강조구문. raise(타동사) + a voice.
- **No longer could this stickler get in the way of Marius's looting of Rome, nor could the existence of this ethical man embarrass or show up the rising criminal class** : 부정어 No longer · nor가 문두 → 조동사 could + 주어 도치. 변형 → No longer this stickler could는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opulist	대중 영합적인	demagogic	elitist
disenfranchised	권리를 빼앗긴	powerless	privileged
stymie	방해하다	hinder, block	promote
advocate for	~을 옹호하다	champion	oppose
at the expense of	~을 희생하여	at the cost of	for the benefit of
entrenched	굳게 자리 잡은	established	—
instigate	일으키다, 착수하다	initiate	—
extort	갈취하다	extract by force, wring	—
animus	적의	hostility	goodwill
stacked	(한쪽으로) 짜인	rigged	impartial
condemnation	규탄	denunciation	praise
kangaroo court	엉터리 재판	sham trial	fair trial
stickler	깐깐한 원칙주의자	perfectionist	—
loot (v.)	약탈하다	plunder	—

내용 일치 같은 수법을 먼저 쓴 사람 = 스카우루스 · 혐의 = 보호하던 사람들을 갈취 · 고발한 쪽 = 실제 갈취자 · '성가신 존재' = 디오 카시우스의 표현 · 변론 거부 · 키케로 『연설가론』 · 소크라테스 · 마르틴 루터 · 결과 = 거액 판결, 재산 몰수, 추방. **밑줄 의미** Muddy the waters = 진실을 흐려 놓다 / a mirror = 그를 보면 부패한 자들의 죄가 비치는 사람 / the kangaroo court = 결론이 정해진 엉터리 재판.

> **한 줄 요약** 부자를 건드린 개혁가는 자신이 보호하던 사람들을 갈취했다는 거꾸로 된 누명을 썼고, 변론을 거부한 채 재산을 잃고 추방되었다.

9-5 스스로 고른 유배지, 스미르나 73쪽 ¶1~¶7

원문 위치 원서 73쪽 ¶1~¶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As he no doubt learned from his teacher	접속사 as(~듯이) + no doubt(추정)
★	¶1	prepared at all times for the unexpected blows	빈칸·요약 1순위(8장 연결)
▲	¶1	if not to block them, at least to absorb	if not A, at least B
▲	¶2 첫 문장	in so doing, all but proved	all but = 거의 / 목적어 후치
◆	¶2 첫 문장	one small dignity	지칭: 유배지를 고를 기회
◆	¶3 첫 문장	with a twinkle in his eye, perhaps	밑줄 의미: 통쾌한 장난기(추정)
▲	¶3 첫 문장	the very city he had allegedly defrauded	the very + 명사 / allegedly
▲	¶3 둘째 문장	Smyrna, grateful for …, welcomed	형용사구 삽입 + 본동사
★	¶3 다섯째 문장	78 BC … "a pattern of virtue"	숫자·인용 — 서답형 후보
▲	¶4 다섯째 문장	with civil war likely in Rome	with + O + 형용사
▲	¶4 여섯째 문장	that you should wish me	놀람의 should + 4형식 wish
◆	¶4 일곱째 문장	blush for my exile than weep at my return	밑줄 의미 1순위
▲	¶5	Better to be missed than to overstay	(It is) better to V than to V
★	¶6 셋째 문장	his History of Rome in Greek	서답형 후보(언어)
▲	¶6 넷째 문장	Hardly broken by the ignominy	과거분사 분사구문 + hardly
▲	¶7	the "honor" was politely declined	행위자를 생략한 수동

내용

스승 파나이티오스에게서 틀림없이 배웠듯이(저자의 추정), 판크라티온 선수처럼 우리는 삶의 예기치 못한 타격에 늘 대비해야 하고,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징징대지 않고 받아 내고 견뎌야 한다. 적들은 이 타격을 가하면서 고결한 공직자이자 전쟁 영웅에게 작은 체면 하나를 베풀었는데, 그 일로 역사 앞에 그의 완전한 무죄를 사실상 증명했다. 거짓 고발자들이 희생양에게 유배지를 고를 기회를 준 것이다. 루틸리우스는 어쩌면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적어도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의 돌처럼 단단한 결의로, 자신이 사취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도시 스미르나를 골랐다. 한때 자신들을 다스린 그의 개혁과 꼼꼼한 정직에 감사하던 스미르나는 그를 두 팔 벌려 맞고 시민권까지 제안했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그는 에피쿠로스학파 사람의 해방 노예로 철학, 수사학, 문법을 차례로 가르친 오필리우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스미르나에 정착해 노년까지 함께 살았다. 기원전 78년 그곳을 찾은 키케로는 그를 "미덕과 옛 명예와 지혜의 본보기"라 불렀다. 그는 원한을 품었을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전하는 바로는 그는 삶을 이어 갔고, 권력에서 밀려났는데도 재산이 늘었으며, 숭배자들의 선물이 쏟아졌다. 로마에 내전이 일어날 듯하니 머지않아 모든 망명자가 돌아갈 수 있으리라 위로하는 친구에게 그는 답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떠날 때보다 더 불행한 귀환을 바라는가. 나는 조국이 내 귀환에 울기보다 내 추방에 얼굴을 붉히기를 훨씬 바란다!" 너무 오래 머물러 환영을 잃느니 그리운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스토아는 국가가 구제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면 현자는 멀리 머문다고 믿었고, 철학자이자 군주들의 조언자였던 공자도 수세기 전에 비슷한 말을 했다. 확실한 것은 루틸리우스가 스미르나에 머물며 그리스어로 『로마사』를 썼다는 사실이다. 치욕에 꺾이기는커녕 그는 계속 일했다. 마리우스를 이기고 독재관이 된 술라가 마침내 그를 로마로 불렀을 때, 그 '영예'는 정중히 거절되었다.

어법

- **As he no doubt learned from his teacher, Panaetius, like the pankratist, you must be prepared at all times for the unexpected blows of life** : as = ~듯이(양태). no doubt = 틀림없이(저자의 추정이지 기록이 아님). you = 일반 주어. be prepared for = ~에 대비하다.
- **if not to block them, at least to absorb and endure them without whining** : if not A, at least B = A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B. 두 to부정사 모두 prepared에 걸린다. without -ing = ~하지 않고.
- **chose Smyrna—the very city he had allegedly defrauded** : the very + 명사 = 바로 그 ~. he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allegedly = (증거 없이) 주장된 바로는 → 실제로 속였다는 뜻이 아니다.
- **Smyrna, grateful for the reforms and scrupulous honesty of the man who had once governed them, welcomed Rutilius with open arms** : 주어 Smyrna 뒤에 형용사구(grateful ~)가 삽입되고 본동사는 welcomed. them = 스미르나 사람들(도시 이름을 사람들로 받음).
- **"What sin have I committed that you should wish me a more unhappy return than departure?"** : 의문사 + have + S + p.p. 의문문. that절의 should = 놀람 · 의외의 감정을 나타내는 should. wish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에게 …을 바라다).
- **"I should much prefer to have my country blush for my exile than weep at my return!"** : should prefer = would prefer(1인칭 격식체). have + O + 원형(blush · weep 병렬) = 조국이 ~하게 하다. 원문은 prefer to A than B를 썼고, 흔히는 prefer to A rather than B로 쓴다.
- **Hardly broken by the ignominy of what was done to him, he just kept working** : 부정 부사 hardly + 과거분사 분사구문(being 생략). hardly = 거의 ~않다. keep -ing = 계속 ~하다.
- **When Rutilius was eventually invited back to Rome by Sulla, who triumphed over Marius and became dictator, the "honor" was politely declined** : 계속적 용법 who(선행사 Sulla). triumph over = ~에게 이기다. 주절은 행위자(by Rutilius)를 생략한 수동태 — 거절을 담담하게 전한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low (n.)	타격	strike	—
endure	견디다	bear, withstand	succumb
whine	징징대다	complain	—
all but	거의	almost	—
sacrificial victim	희생양	scapegoat	—
allegedly	주장된 바로는	supposedly	—
defraud	사취하다	cheat, swindl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crupulous	양심적인, 꼼꼼한	meticulous	unscrupulous
bitter	원한을 품은	resentful	content
consoling	위로하는	comforting	—
overstay one's welcome	너무 오래 머물러 미움을 사다	—	—
redemption	구제, 회복	salvation	—
ignominy	치욕	disgrace	honor
dictator	독재관	autocrat	—

내용 일치 판크라티온의 교훈 = 스승 파나이티오스에게서 배웠으리라는 저자의 추정 · 유배지 = 스미르나(그가 사취했다는 도시) · 시민권 제안 · 오필리우스 = 수에토니우스의 기록 · 78 BC 키케로 방문 · 『로마사』 = 그리스어 · 초청한 독재관 = 마리우스를 이긴 술라. **밑줄 의미** blush for my exile than weep at my return = 내전(조국의 불행) 덕에 돌아가느니 조국이 나를 내쫓은 일을 부끄러워하는 편이 낫다. **지칭** 73쪽 ¶2 this blow = 거액 판결 · 재산 몰수 · 추방 / ¶3 them = 스미르나 사람들 / ¶7 the "honor" = 술라의 귀환 초청.

> **한 줄 요약** 판크라티온 선수처럼 타격을 견딘 루틸리우스는 자신이 속였다는 도시에서 환영받았고, 원한 없이 일하며 귀환의 '영예'도 거절했다.

9-6 부당한 운명, 그래도 누구로 살 것인가 73쪽 ¶8 ~ 74쪽 ¶7

원문 위치 원서 73쪽 ¶8 ~ 74쪽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 셋째 문장	This was not Plato's Republic	밑줄 의미: 철인 정치는 없었다
▲	¶8 셋째 문장	not only not desired, they were the enemy of those trying to	not only A, B + 현재분사 후치 수식
★	¶9	Unlike Rutilius, almost all of them were guilty.	요지·내용 일치 후보
▲	¶10 첫 문장	the good were punished while the evil got away scot free	the + 형용사 = 복수 명사
▲	74쪽 첫 줄	one cannot help being grieved	cannot help -ing
●	74쪽 첫 줄	pays her rewards so unjustly	반전 후보 → justly
▲	74쪽 ¶1 셋째 문장	Would you rather go out … or live in denial	would rather A or B
▲	74쪽 ¶2 둘째 문장	as bad as what they were witnessing was	as + 형용사 + as S V(양보)
◆	74쪽 ¶2 둘째 문장	"the storm before the storm"	밑줄 의미 1순위
▲	74쪽 ¶3	With Julius Caesar coming	with + O + 현재분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4 셋째 문장	never, it seems, did he question whether	부정어 도치 + whether절
▲	74쪽 ¶4 여섯째 문장	all he controlled was his character and his ability to let his true colors shine undiminished	all (that) + 단수 동사 / let + O + 원형
◆	74쪽 ¶5 첫 문장	But Zeno only had to say it.	밑줄 의미: 말과 실천의 차이
▲	74쪽 ¶6 첫 문장	It was he who had to stand there	강조구문(주어 강조)
◆	74쪽 ¶6 다섯째 문장	the implicit carrot that went along with the legal stick	밑줄 의미: 협박에 딸린 회유
★	74쪽 ¶7 첫 문장	the last honest man in Rome	제목·요약 1순위

내용

동료 스토아들은 이 명예로운 사람이 받은 대우에 격분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중요한 교훈이었다. 옳은 일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곳은 플라톤의 『국가』가 아니었다. 철인 왕은 환영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국을 통해 부자가 되려는 자들의 적이었다. 불명예는 흔한 일이 되었고, 이 시대의 주요 인물은 모두 선거 부정이나 재정 부패로 고발당하게 된다. 루틸리우스와 달리 그들은 거의 모두 유죄였다. 왜 선한 사람은 벌받고 악한 사람은 아무 탈 없이 빠져나가는 듯 보였을까. 슬프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이치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다. 선한 사람들이 나쁜 끝을 맞을 때,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죽고 루틸리우스가 추방되어 살고 폼페이우스와 키케로가 자기 피보호자들에게 목을 내밀고 위대한 카토가 칼에 엎어져 자신과 국가의 끝을 보여 줄 때, 운명이 상을 이토록 부당하게 준다는 데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도 저자는 묻는다. 당신은 누구로 살겠는가. 사회가 보상하더라도 속이고 훔치고 그릇된 일을 하는 데에는 대가가 있다. 루틸리우스처럼 고개를 들고 떠나겠는가,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수치를 부정하며 살겠는가. 당시의 스토아들은 앞날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들이 본 혼란은 2000년 뒤 작가이자 팟캐스터 마이크 덩컨의 말처럼 "폭풍 전의 폭풍"일 뿐이었다. 공화정의 제도는 크게 약해졌고 남은 것은 위대하고 명예로운 사람들의 용감한 저항뿐이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도 한동안 루틸리우스는 빛을 비추었다. 선을 위해 일하고 그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그것이 가치 있었는지 의심한 적이 없는 듯하고, 자기 운명에 원한도 품지 않았다. 남들이 무엇을 말하고 하든 자기 일은 선하게 사는 것이라 정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거듭 되새기듯, 자신이 통제하는 것은 성품과 본색을 흐림 없이 빛나게 할 능력뿐임을 알았다. 제논은 "내 몸에 폭력을 가할 수는 있어도 내 정신은 철학에 남을 것"이라 했지만 말했을 뿐이고, 마르쿠스는 억울한 유죄 판결도 집을 잃는 일도 겪지 않았다. 루틸리우스는 그것을 믿고 말하고 살아 냈다. 날조된 혐의로 고발당하고 평판이 더럽혀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조국에서 멀리 쫓겨나는 자리에 서야 했던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래도 그는 무너지지도 타협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았고, 법이라는 채찍에 딸려 왔을 것이 분명한 '반대만 거두면 부와 지위를 주겠다'는 암묵적 당근도 거절했다. 그는 타협 없이, 로마의 마지막 정직한 사람이었다.

어법

- **philosopher kings were not only not desired, they were the enemy of those trying to get rich through the empire** : not only A, (but) B에서 but이 빠진 형태. those trying ~ = ~하려는 사람들(현재분사 후치 수식).
- **Why did it seem that the good were punished while the evil got away scot free?** : the + 형용사 = 복수 보통명사(the good = good people → were). while = 대조. get away scot free = 아무 벌 없이 빠져나가다.

- **one cannot help being grieved that Fortune pays her rewards so unjustly** : cannot help -ing = ~하지 않을 수 없다. being grieved = 수동형 동명사. 변형 → cannot help to be grieved는 오답.
- **They could not have known that as bad as what they were witnessing was, it was only ~ "the storm before the storm."** : could not have p.p. = ~했을 리 없다(알 수 없었다). as + 형용사 + as + S + V = 양보(~이긴 했지만). 그 절의 주어 what they were witnessing(단수) → was.
- **With Julius Caesar coming, the answer, sadly, was not much longer** : with + O + 현재분사(부대상황: 카이사르가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카이사르가 '오는' 쪽 → 능동 coming.
- **But never, it seems, did he question whether it was worth it. Nor did he harbor any bitterness** : 부정어 never · nor가 문두 → did + 주어 + 원형 도치. it seems = 삽입절. whether = ~인지 아닌지.
- **all he controlled was his character and his ability to let his true colors shine undiminished** : all (that) he controlled = 그가 통제하는 전부 → 단수 동사 was. let + O + 원형(shine). undiminished = 상태를 덧붙이는 형용사(줄지 않은 채).
- **It was he who had to stand there as they brought him up on trumped-up charges** : It was ~ who 강조구문. 강조하는 자리가 주어라 주격 he(구어에서는 him도 쓴다). as = ~할 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ivid	격노한	furious	calm
commonplace	흔한	ordinary	rare
scot free	아무 벌 없이	unpunished	—
grieve	슬퍼하다	mourn	rejoice
denial	부인, 외면	refusal	acceptance
valiant	용감한	brave	cowardly
hold back	막아 내다	restrain	release
harbor (v.)	(감정을) 품다	nurse, hold	—
undiminished	줄지 않은	undimmed	diminished
convict (v.)	유죄 판결하다	condemn	acquit
trumped-up	날조된	fabricated	genuine
soil (v.)	더럽히다	stain	cleanse
pesky	성가신	annoying	—
uncompromisingly	타협 없이	unyieldingly	flexibly

내용 일치 거의 모두 유죄 = 루틸리우스를 뺀 이 시대의 주요 인물 · 세네카가 든 인물 = 소크라테스 · 루틸리우스 · 폼페이우스 · 키케로 · 카토 · '폭풍 전의 폭풍' = 마이크 덩컨(2000년 뒤) · 제논은 말했을 뿐, 마르쿠스는 억울한 판결도 집을 잃는 일도 겪지 않음. **밑줄 의미** Plato's Republic = 철인이 다스리는 이상 국가 / the storm before the storm = 더 큰 재앙(공화정 몰락) 전의 혼란 / the carrot ... the legal stick = 법의 채찍에 딸려 온 회유(반대를 접으면 부와 지위).

> **한 줄 요약** 운명은 선한 사람에게 부당했지만, 루틸리우스는 스토아의 원칙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 낸 로마의 마지막 정직한 사람이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9 RUTILIUS]

범위	Publius Rutilius Rufus, the Last Honest Man (원서 PDF 69~74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Rutilius's fellow Stoics were furious at his treatment, yet his fate taught them a hard lesson: doing what is right can cost someone everything. Rome was no ideal state ruled by philosopher kings. Nearly every leading figure of the age was charged with bribery or fraud, and in nearly every case except his, the charges were true. It seems unfair that the good suffer while the wicked go unpunished, and even Seneca lamented how unjustly Fortune distributes her rewards. Still, ask yourself whom you would rather be. Wrongdoing carries its own price, even when society rewards it. It is better to leave with your head held high than to spend your life denying your own shame.

① Philosophers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rule the state.
② Society eventually rewards those who act honestly.
③ Seneca's view of Fortune was too pessimistic.
④ Doing what is right is worth its cost, even when it is punished.
⑤ Wrongdoing is acceptable as long as society rewards it.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aving won their case, Rutilius's enemies granted him one small courtesy: he could choose where he would spend his exile. In doing so, they nearly proved his innocence to history. Rutilius picked Smyrna—the very city he had been accused of cheating. Far from turning him away, the people of Smyrna, who remembered the reforms and the careful honesty of their former governor, received him warmly and even offered to make him a citizen. According to Suetonius, he settled there with Opilius Aurelius, who had taught philosophy, rhetoric, and grammar in turn. When Cicero visited him in 78 BC, he described the exile as a model of virtue, old-fashioned honor, and wisdom.

① How Cicero Became a Student of Rutilius
② The Harsh Laws of Roman Exile
③ Welcomed by His 'Victims': Rutilius Chooses Smyrna
④ Why Smyrna Turned Away Its Former Governor
⑤ Opilius Aurelius: A Teacher of Three Subjects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any Stoics have spoken bravely about suffering. Zeno declared that others could lay violent hands on him, yet his mind would stay devoted to philosophy, and Marcus Aurelius kept reminding himself that only his character was truly his to control. Yet for Zeno these were only words, and Marcus was never convicted of a crime he had not committed. Rutilius was. He faced invented charges, lost his good name and his property, and was sent far from his beloved homeland. Under all that pressure he never bent the knee, and he refused what was almost certainly an unspoken bargain: drop your objections, and we will make you rich. He did not merely believe in Stoic principles; he lived them.

① Words about virtue matter more than deeds.
② Marcus Aurelius suffered more than any other Stoic.
③ A wise person should bargain with those in power.
④ Exile is the most painful punishment of all.
⑤ Stoic principles are proved by living them out under pressure.

4. 밑줄 친 a mirro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Rutilius had himself overseen many prosecutions for corruption. Now he stood trial, falsely charged with extorting the very people he had protected—and his accusers were the real extortioners. He seemed almost shocked by the hatred of his enemies and by how far they were prepared to go. The jury was packed, and Marius pushed the case from behind the scenes. The historian Dio Cassius says that Marius was irritated by a man of Rutilius's excellence and reputation. Irritated? Rutilius was a mirror: a living rebuke of all that greedy and dishonest men represented.

① a man who copied the habits of powerful people
② a man whose honesty exposed the wrongdoing of others
③ a judge who reflected the wishes of the jury
④ a friend who showed Marius his own good qualities
⑤ a victim who quietly accepted his fate

5. 밑줄 친 blush for my exile than weep at my return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as Rutilius bitter in exile? Apparently not. Reports say that he simply got on with his life, and that his wealth actually grew while he was far from the centers of power, as gifts from admirers kept arriving. One friend tried to comfort him: since civil war seemed likely in Rome, sooner or later every exile would be allowed to come home. Rutilius was not consoled. "What wrong have I done that you should wish me a return sadder than my leaving?" he answered. "I would much rather have my country blush for my exile than weep at my return." It is better, as the saying goes, to be missed than to wear out your welcome.

① He would rather Rome feel ashamed of exiling him than grieve over the disaster that would bring him home.
② He wanted to return to Rome as soon as the civil war began.
③ He feared that the people of Rome would laugh at him on his return.
④ He regretted the wrong that he had done to his country.
⑤ He believed that exile was a sadder fate than death.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Rutilius's first quarrel with Marius was a simple one. Rutilius was convinced that Marius had won an election by paying off people's debts and purchasing votes. Because ① he had once lost an election to a man who bribed his way into office, Rutilius could not let such cheating pass. After all, why hold elections if they were going to be rigged? So ② he spoke up, and in the process ③ he earned an enemy who would never forget the betrayal. For a time, ④ he remained safe, mainly because Marius's grip on the mob was beginning to slip: furious aristocrats murdered one of ⑤ his former allies, and Marius soon had to leave Rome for a while.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Rutilius's career could hardly have begun more brilliantly. Panaetius, who returned to the capital in 138 BC, became his philosophy teacher; Rutilius was then about twenty. A well-liked member of the Scipionic Circle, he served as a military tribune on the staff of Scipio Aemilianus in the savage Numantine War, fought in north-central Spain. Other men may have possessed more dazzling personalities, nobler families, or bigger ambitions than the serious and stern Rutilius, but no one who saw him could miss his presence and conviction. One witness called him a sharp and systematic speaker, although Cicero spoke poorly of his eloquence.

① 루틸리우스는 기원전 138년에 파나이티오스를 따라 로마를 떠났다.
② 누만티아 전쟁은 스페인 남부에서 벌어졌다.
③ 루틸리우스는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참모로 군사 호민관을 지냈다.
④ 루틸리우스는 화려한 성격과 명문가 출신으로 주목받았다.
⑤ 키케로는 루틸리우스의 웅변을 높이 평가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Gaius Marius entered the army under Scipio Aemilianus in the same period as Rutilius. A "new man" of equestrian rank, he rose through a dazzling army career to a record seven consulships—an achievement he said a sign had predicted: a nest holding seven young eagles had dropped into his lap. He lived and ate with his soldiers and abolished the rule that only men with property could serve, so the common people adored him. In 101 BC, after his fourth consulship, he crushed the Germanic Cimbri, slaughtering 120,000 of their warriors, and was hailed as "the third founder of Rome." The Roman elite, however, feared him deeply.

① 마리우스는 루틸리우스와 같은 시기에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밑에서 군 복무를 시작했다.
② 마리우스는 기사 계급 출신의 '새로운 사람'이었다.
③ 마리우스는 새끼 독수리 일곱 마리의 징조가 일곱 번의 집정관직을 예언했다고 주장했다.
④ 마리우스는 병역의 재산 자격 요건을 강화해 귀족층의 지지를 얻었다.
⑤ 마리우스는 킴브리족에게 승리한 뒤 '로마의 세 번째 창건자'로 불렸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first sign that Rutilius lived by his own rules ① <u>came</u> in 115 BC, when he was beaten in the race for consul by Marcus Aemilius Scaurus, ② <u>which</u> had paid bribes to win. Rutilius could easily have done likewise—many would have expected ③ <u>him to do</u> so—but he openly refused, though refusing ④ <u>meant</u> certain defeat. Instead, he took Scaurus to court on charges of ambitus, or political corruption, and Scaurus, the guilty man, ⑤ <u>responded</u> by bringing the very same charges against Rutilius. Neither trial was conclusive, but together they hinted at the battle to com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nvinced that he had done nothing wrong, Rutilius refused (A) [defending / to defend] himself. He would not call on his political friends, nor would he say a single word on his own behalf. In On Oratory, Cicero points out that Rutilius's own silence was not the only thing that doomed him: not one member of his defense team (B) [raised / rose] a voice against the sham court. Cicero even joked that the lawyers must have been afraid (C) [that / what] a passionate defense would get them reported to the Stoics. It was the strategy of Socrates, who refused to dignify the charges, and of Martin Luther: Here I stand.

	(A)	(B)	(C)
①	defending	raised	that
②	to defend	rose	what
③	defending	rose	that
④	to defend	raised	that
⑤	to defend	raised	w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Even without his quarrel with Marius, Rutilius, ① <u>scrupulously</u> honest and guided by Stoic duty, would probably have become a target sooner or later. As debts kept rising, he began reforming the bankruptcy laws, and he led an effort to ② <u>shield</u> the Greeks of Asia Minor from the abusive tax collectors called publicani. Here lies a familiar irony: the strongman gains power by making ③ <u>impossible</u> promises to people who have no voice, and then works hard to block any reform that would make the system ④ <u>fairer</u>. Rutilius was simply doing his job. His practice of oikeiosis taught him that while we pursue our own interests, we must never ⑤ <u>remember</u> the interests of other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Politics is a dirty game, today just as in ancient Rome. Power draws in ego and corrupts those who hold it; it rewards vanity, discourages responsibility, and is always crowded with liars, cheaters, rabble-rousers, and cowards. That is exactly why Mark Twain was right to observe that an honest politician shines more brightly than he would anywhere else. The reason is _____: against a dark background, even a quiet light is easy to see. Of all the Stoics who entered public life, perhaps none stood out more than Publius Rutilius Rufus, whose fierce yet quiet honesty was as uncommon among the men around him as it is now.

① the support of the crowd
② a talent for public speaking
③ simple contrast
④ the reward of wealth
⑤ pure luck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Unable to pay, he lost his property and was driven out of Rome into exile.

Rutilius's silence was noble, but it let his enemies finish him off quickly. (①) The penalty the court imposed was enormous—more than he, or anyone other than the most corrupt officials, could ever have paid. (②) Far from Rome, this stickler for principle could no longer block Marius's plundering or shame the rising class of criminals. (③) Even so, Rutilius did not complain. (④) As he had surely learned from his teacher Panaetius, a person must be ready at every moment, like a pankratist, for life's sudden blows. (⑤) Such blows cannot always be blocked, but they can at least be borne without complaint.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For a while, Rutilius and Marius were on the same side. ① As the army expanded and was reorganized, Rutilius came to direct Rome's strategy for training and deploying its newly diverse troops. ② Marius, it was said, wanted to fight only with soldiers Rutilius had trained, since they were better drilled, more disciplined, and braver than any others. ③ Roman armies were also famous for the roads they built across the lands they conquered. ④ The point is simple: when a job must be done right, nobody is better suited for it than a Stoic. ⑤ When you need a partner in crime and corruption, however, you could hardly find a worse on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Stoics believed that when a state has become hopelessly corrupt and beyond saving, the wise man should keep his distance from it.

(A) Whatever its origin, Rutilius lived by this principle. He remained in Smyrna, and far from being crushed by the disgrace he had suffered, he went on working and wrote a history of Rome in Greek.

(B) So when Sulla, who had defeated Marius and made himself dictator, later invited him back to Rome, Rutilius politely turned down the "honor."

(C) The idea was not unique to the Stoics. Several centuries earlier, Confucius, a philosopher who also advised princes, had said something similar.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ad as things were, the Stoics of Rutilius's day could not foresee what was coming. They had no way of knowing that the turmoil before their eyes was, as Mike Duncan, a writer and podcaster, would call it some two thousand years later, only "the storm before the storm." The institutions of the Roman Republic had already been badly weakened, and the only thing standing in the way of collapse was the courageous stand of a few noble and upright men. How long could they keep the flood at bay? With Julius Caesar on the horizon, the sad answer was: not much longer.

→ The troubles that the Stoics of Rutilius's time witnessed were only the (A) _____ to far worse disasters, and the few honorable men who resisted could at best (B) _____ the Republic's fall.

① prelude …… delay
② prelude …… prevent
③ solution …… delay
④ response …… hasten
⑤ solution …… preven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Publius Rutilius Rufus studied philosophy under Panaetius and served Rome as a soldier and an official. In 115 BC he lost the election for consul to Scaurus, who had bribed his way into office; Rutilius refused to buy a single vote. Later he angered Gaius Marius, a general who claimed that a nest of seven young eagles had foretold his seven consulships. Accused of crimes he had not committed, Rutilius was sent into exile, and he chose to live in Smyrna, the very city he had supposedly cheated. There he wrote a history of Rome in Greek. When Sulla became dictator and invited him back, he politely declined.

<QUIZ>

(1) In which city did Rutilius live during his exile?
Answer for (1): _____

(2) Under whom did Rutilius study philosophy?
Answer for (2): _____

(3) Who defeated Rutilius in the election for consul in 115 BC?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Rutilius bought votes to win the election in 115 BC?
Answer for (4): _____

(5) In which language did Rutilius write his history of Rome?
Answer for (5): _____

(6) How many young eagles were in the nest that Marius spoke of?
Answer for (6): _____

(7) Which dictator invited Rutilius back to Rom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Rome	N. Zeno
B. Latin	O. three
C. Marius	P. Panaetius
D. Scipio Aemilianus	Q. Pompey
E. True	R. Scaurus
F. four	S. Seneca
G. Greek	T. Sulla
H. seven	U. Smyrna
I. False	V. Rhodes
J. Julius Caesar	W. Socrates
K. Athens	X. Cato
L. Cicero	Y. twenty
M. Mithridates	Z. Pontu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정치판의 정직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보다 더 빛난다. (조동사 would 뒤 shine 생략)

02 그의 경력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빛나게 시작되었다. (as + 부사 + as one could imagine)

03 루틸리우스가 같은 일을 하기는 쉬웠을 것이다. (It would have been easy for ~ to have p.p.)

04 그의 경력은 그가 기록적인 일곱 번의 집정관직을 맡는 것으로 이어졌다. (lead to + 소유격 + 동명사)

05 그는 군대로 찬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개혁도 시작했다. (Not only had + S + p.p. / but ~ also)

06 그들은 정직한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정반대로 고발했다. (accuse A of B / 관계대명사 what)

07 무죄임을 알았기에 루틸리우스는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거절했다. (분사구문 Knowing / decline to V)

08 그는 자신이 사취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도시를 골랐다. (the very + 명사 / allegedly)

09 치욕에 거의 꺾이지 않은 채, 그는 계속 일했다. (분사구문 Hardly broken / keep -ing)

10 운명이 상을 이토록 부당하게 준다는 데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 / being grieved)

11 그는 그것이 가치 있었는지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Never + did + S + 원형 / whether)

12 날조된 혐의에 맞서야 했던 사람은 바로 그였다. (It was he who 강조 / trumped-up)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루틸리우스의 출생·사망 연도 / 출신	
정치판의 정직을 말한 작가 / 저자가 든 이유	
철학 스승 / 그가 로마로 돌아온 해 / 그때 루틸리우스의 나이	
소속 모임 / 복무한 전쟁과 장소 / 직책 / 상관	
한 목격자가 평한 연설 / 그의 웅변을 폄하한 사람	
집정관 선거에서 진 해 / 이긴 사람 / 그 방법	
서로 건 혐의 / 재판의 결과	
십자 포화에 갇히기 시작한 전쟁과 해	
마리우스의 신분 / 집정관 횟수 / 그가 주장한 징조	
동맹 시절 루틸리우스가 맡은 일 / 마리우스의 선호	
마리우스가 인기를 얻은 두 행동	
킴브리족에게 이긴 해 / 몇 번째 집정관직 뒤 / 학살된 수 / 얻은 칭호	
망명 중 마리우스가 부추긴 왕 / 그의 나라 / 기록자	
루틸리우스의 개혁 둘	
스토아 개념 / 그 뜻	

항목	답
씌워진 혐의 / '성가신 존재'라 전한 역사가 / 저자의 표현	
재판에서의 태도 / 키케로의 책 / 비유된 두 인물	
고른 유배지 / 제안받은 것 / 함께 산 사람(기록자)	
키케로가 방문한 해 / 그의 평	
유배 중 쓴 책 / 언어 / 귀환을 청한 독재관	
그 시대를 부른 말 / 말한 사람	

4-3. 통합 사고 문제 — 8장과 9장을 잇는 자리

문제

8장에서 파나이티오스가 덕 있는 삶의 모델로 판크라티온 선수를 들어, 삶의 갑작스러운 위험에 늘 깨어 대비하는 마음을 강조한 일(66쪽 ¶8, 67쪽 인용 · ¶2)과, 9장에서 그의 제자 루틸리우스가 거짓 고발로 재산을 잃고 추방되고도 불평 없이 견디며 일을 계속한 일(72쪽 ¶5 ~ 73쪽 ¶1, 73쪽 ¶4 · ¶6)을 비교하여,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실천한 태도를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8장 또는 9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태도: A Stoic must always be _____ for the blows of life.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